

보도시점 2026. 10. 23.(금) 14:00 (2026. 10. 24.(토) 조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추계학술대회에서 세대상생을 위한 고용노동교육 발전방안 모색

- 10월 23일 한국인사관리학회·한양인구문제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 고용노동교육 2.0시대, 세대상생을 위한 고용노동교육 발전방안 논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오는 10월 23일(금) 한국인사관리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세대상생을 위한 고용노동교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노동시장 내 세대 구성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고용노동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 상생과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세대상생과 고용노동교육'을 주제로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동교육의 역할과 고령인력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세션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총 3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세대상생 인사관리를 위한 노동교육 방안 연구'를 주제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동교육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어 김성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고용노동교육 2.0 시대 세대상생을 위한 노동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노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살펴보고,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발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가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와 조현빈 한남대학교 교수가 '고령인력 별도 임금체계와 교육훈련 관행의 결합과 조직성과: 인사관행 간 정합성을 바탕으로 한 노동교육에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령인력의 별도 임금체계와 교육훈련 관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사관행 간 정합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령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세대상생을 위한 노동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주제발표에 대해서는 전이영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진숙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석영 인천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교육적·정책적 시사점과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인구구조와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세대상생을 위한 고용노동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앞으로도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연구개발실	책임자	실 장	전이영	031-760-7717
		담당자	연구원	김재언	031-760-7711